

빅 브랜드가 되려고 애쓰지 마. 조그맣더라도 너의 발자국이
쉽게 잊히지 않는 브랜드로 남기 바란다.

패션 디자이너 엘리스 템펠리Alice Temperley가 한 말을 가슴에
새겨두렴.

“You have to stay true to your heritage; that’s what
your brand is about.”

자네가 남길 유산을 충실히 관리하게. 바로 자네 브랜드에 관
한 모든 것 말일세.